

일본몽에 취해 일본으로 가버린 유니스트 학생의 충격적인 근황!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서포터즈와 JENESYS 2022, 7일간의 방일 기록~

산업공학과 20 김선욱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 디자인을 복수전공하고 있고, 디자인학과 이경호 교수님의 표현적 컴퓨팅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있는 20학번 김선욱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한국청년방일단 JENESYS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화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의 한 초등학교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JENESYS 2022 한국방일청년단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3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다음 해 3월까지의 행사를 전년도로 표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2023년에 방일했음에도 한국청년방일단 프로그램의 이름이 JENESYS 2022인 이유입니다! JENESYS 프로그램은 매년 주제가 있는데요. 올해는 '방재Tourism'으로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을 시찰하고, 도쿄에서도 여러 대학생 및 외교관분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점심식사였던 카이센동. 칸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가이세키 요리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출국과 숙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일본 외무성에서 지원해주고, 외교관 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노천온천이 있는 고급 호텔과 고급 요리가 일정 내내 제공되어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머무른 호텔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이재민분들께 무료로 숙박과 온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교육까지 제공했던 미나미산리쿠 칸요 호텔을 이용할 정도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를 넣고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 프로그램의 큰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로부터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일본 명문대학 호세이대학 학생과의 교류회.
발표하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외에도 Cool Japan Reporter 같은 전국 모집 프로그램이나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같이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수상 등을 통해 JENESYS로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인 이수현 20주기 독후감 공모전’이라는 글쓰기 대회에서 대학부 금상을 받아 총영사관과 인연을 맺었고, 원래 JENESYS 2021로 방일했어야 했는데 COVID-19 팬데믹으로 취소되어, 서포터즈로 한 번 더 도전하여 방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영사관에서 일본 여행 VLOG 공모전 같은 행사도 새로 기획하고 있어 여기서 수상해도 JENESYS로 선발되어 방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COVID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만큼 JENESYS 2023부터는 2박 3일 동안의 일본 홈스테이 일정도 부활해, 예전처럼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일본 외무성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류해본 점도 좋았습니다. 한국방일청년단에서도 의학과, 건축학과, 디자인학과, 중어중문학과 등 일본 관련 학과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폭넓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도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JENESYS 한국방일청년단으로 선발되려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서포터즈로서, 일정 기간 활동 후 JENESYS로 방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남지역 대학에 재(휴)학 중인 학부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괜찮고,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 카드 뉴스나 VLOG 제작, SNS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합니다. 디자인학과나 UNISTATION, UNI:ON 친구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신청해보세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서포터즈 활동.
부산세계시민축제에서 일본의 놀이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귀한 목숨을 바쳐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된 이수현 씨.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추모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일 후에는 총영사관에서 성과 보고회를 하는데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별로 제작한 카드뉴스와 VLOG도 관계자분들과 함께 감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한 사람들은 수료증도 받습니다. JENESYS 프로그램은 일본 외무성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JENESYS 한국 동창회도 계속 강화되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님과 서포터즈(7기) 수료증을 들고 한 컷!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HCI KOREA 2023에서 논문 구두발표. 교수님 사랑합니다 ♥



만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미래에 프로그래머가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웹툰 스튜디오 설립을 목표로, 만화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Stable Diffusion 같은 인공지능 모델과 사용자 경험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 연구가 First Mover로서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및 기술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JENESYS 프로그램이 제 꿈을 구체화하는 첫 발자국일 뿐만 아니라, JENESYS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UNISTAR분들께 영감을 주고, 함께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